

홀로그램을 이용한 상표 보호라벨

— KURZ JAPAN(株) —

홀로그램은 제작하는데는 고사시 설과 고도기술을 요하여 동일한 디자인의 것은 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산업기술이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상품의 위조 또는 모조품이 경쟁업체 또는 각 경쟁국에서 출현하여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진품을 원하는 구매자는 혼란시키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기제품의 성가를 고수하고 구매자의 시선을 끌어 구매의욕을 돋구며 상품도장의 디자인

의 고급화를 통해 품질의 고급화를 원하는 상품제조업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구매자의 신뢰감을 보장해주는 한 방법으로 홀로그램 라벨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홀로그램 라벨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신용카드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입체 홀로그램을 이용한 단순한 라벨이나 행택이 있다.

라벨제작방법으로는 홀로그램이 인쇄된 전사지를 스티카 원단에 전사하거나 홀로그램이 인쇄된 필름에 점

착제를 도포하여 라벨로 만들었다.

외국에서는 지폐, 우표, 증권, 상품권 등의 위조방지용으로 사용될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새로운 소재의 라벨용 또는 행택용 재료일 뿐만 아니라 고가의 약품, 시계, 화장품, 유명브랜드의 의류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둘째 위의 홀로그램 라벨을 한 차원 더 높은 기술로서 위조를 방지하는 자기파괴성 라벨이 최근 개발되었다. 이 홀로그램 자기파괴성 라벨은 일단 부착한 용기나 박스를 개봉하면 홀로그램의 디자인 또는 이미지 등 원형이 파괴되어 다시 부착하여 쓸 수 없도록 고안된 라벨이다.

결국 라벨이 종래의 상표 또는 상표의 표시기능에서 광고의 효과와 위조방지 기능까지 겸하도록 한 것이 홀로그램 라벨의 특징이며 종래의 라벨은 기술적으로 교묘히 떼어내면 재사용이 가능하나, 재사용까지 방지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 자기파괴성 홀로그램 라벨이다.

이 자기파괴성 홀로그램은 독일 KURZ회사의 독창적인 라벨로서 각국에서 빠른 보급이 예상된다.



▲ 라벨용으로 사용 가능한 홀로그램은 현재 국내외의 다양한 제품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빠르게 적용되고 있다.